

코로나19 극복 온정의 손길



KT, 2.3만개 약국에 통화연결음 무료제공 KT는 17일 전국에 있는 2만3000개 약국을 대상으로 유선통화연결음 '링고비즈플러스'를 3개월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KT '링고비즈플러스'는 소상공인 전용 유선통화연결음 서비스다. 신규로 링고비즈플러스(월 4400원, 부가세 포함)를 신청한 약국은 이달부터 3개월간 별도 비용 없이 이용 가능하다. 종로구에 위치한 약국의 약사가 유선통화 통화연결음 멘트를 변경하기 위해 링고 웹사이트에서 안내 멘트를 입력하고 있다. /KT

하이트진로, 취약계층에 생수·간식 제공

쪽방촌·노숙인 등에 긴급 지원 전국 17개소 임대료 전액 감면도



하이트진로가 17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서울역 '따스한 채움터'에 생수를 전달했다.

하이트진로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생수와 간식을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는 서울 지역 쪽방촌 거주민과 서울역 '따스한 채움터'의 노숙인 등 2000명에게 생수 1만8000병과 백설기 2500개를 순차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하이트진로는 8년간 후원을 이어가고 있는 쪽방촌과 노숙인 급식소가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위축되면서 봉사자의 부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긴급 지원에 나서게 됐다.

하이트진로는 지역 사회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힘을 보태기 위해 다

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서울, 부산, 강원, 전주 지역의 17개소 임대료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으며, 대구·경북 지역에 마스크, 손 세정제 등의 방역 물품과 생수 등 음료와 성금을 포함해 총 12억 원을 지원했다. /김민지 기자 kmj@

케이투코리아 대구·경북 매장 마스크 추가 지원

K2 코리아

케이투코리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매장에 마스크를 추가 지원했다고 밝혔다.

케이투코리아는 지난달 26일 대구·경북지역 내 K2, 살레와, 아이더, 와이드앵글, 다이아핏 등 109개 그룹 브랜드 매장에 KF94 인증 마스크 1만900장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이달 3일과 12일에 각각 1만2000장, 1만1400장을

추가로 지원, 대구·경북지역 매장에 현재까지 총 3만4300장의 마스크를 전달했다.

케이투코리아 관계자는 "케이투코리아는 근무자와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번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세븐일레븐 퇴직 직원, 가맹점에 마스크



대구·경북지역 520여곳에 전달

세븐일레븐을 퇴직한 직원들의 모임 '세사모(세븐일레븐을 사랑하는 모임)'가 성금을 모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가맹점에 마스크를 지원한다.

편의점 세븐일레븐 측은 세사모와 현직 임원이 함께 힘을 모아 마스크 2600여개를 마련했으며, 이 마스크는 대구·경북 지역 가맹점 520여 곳에 금주 내 전달, 안전한 매장 운영을 위해 경영주와 메이트가 착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대구 의료진들에게 '사랑의 도시락'

도 전달한다.

세븐일레븐은 롯데푸드와 함께 17일 오후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를 통해 '코로나19' 전담병원인 대구의료원으로 도시락 250인분을 전달, 의료진 및 의료 봉사자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했다.

함태영 세븐일레븐 커뮤니케이션부 문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힘쓰고 있는 가맹 경영주와 의료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준비했다"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

공공 얼어붙은 국내외 미술계



홍경안 역
시시일각

'코로나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지구촌 전체를 강타하면서 국내외 미술계도 공공 얼어붙었다. 세계적인 명성의 아트페어와 비엔날레 등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가 하면, 예정된 행사들조차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형국으로 치달고 있다.

우리나라 상황부터 썩 좋지 않다. 지난 4일자 칼럼('코로나19 직격탄, 끼니 걱정에 한숨짓는 예술계')에서 언급했다시피 국립현대미술관을 포함한 부산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등 전국 국립미술관은 코로나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된 지난달 23일을 전후해 일제히 잠정 휴관에 들어갔다.

예술의 전당을 비롯한 문화예술 전문 공간들도 자체 기획전을 모두 중단했다. 중앙 및 지방 할 것 없이 전시를 멈춘 갤러리들도 상당수에 달한다. 어떤 이유론든 국내 거의 모든 미술관과 예술 공간들이 일시에 문을 걸어 잠근 건 한국 현대미술 70여 년 동안 전례 없는 일이다.

다행히 근래 들어 확진자가 두 자리수로 떨어지는 등 진정세를 보임에 따라 다시 봄날을 희망하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 선부르다. 세계 여러 나라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얽혀 공동운명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동시대에선 우리만 안정된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연생태, 관광, 무역 등이 그러하듯 미술계도 한 배를 탄 입장에

선 '공동운명체'와 밀접해 있다. 시간성과 공간성을 아우르는 동시에 서로 다른 문화가 이질성 없는 연속적 관계 맺음을 통해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과 형식 및 내용을 형성하는 게 동시대 미술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이를 가시적으로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국제전이다.

그러나 문화의 지속적 관계는 고사하고 일단 물리적 환경부터 제약이 많다. 국제전은 서너 달 전에는 작품 운송이 시작되어야 하는데다 참석 가능한 작가 리스트가 확보되어야 하며, 작품 설치안까지 확정 짓는 게 일반적이지만 많은 국가들이 국경을 봉쇄한 채 하늘길까지 막으면서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다.

당장 6월에 개막하는 제주비엔날레는 물론, 9월 문을 여는 광주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등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전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같은 달 진행될 예정인 대구사진비엔날레나 올 하반기 대기 중인 강원국제예술제-키즈트리엔날레도 예외는 아니다. 일단은 지켜본다는 입장지만 만약을 대비한 전략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제전을 준비 중인 일부 사립미술관들과 아트페어 사정 또한 나올 게 없다. 국내 주요 사립미술관으로 꼽히는 모 미술관은 국제적 명성의 남미 출신 작가의 전시를 준비 중이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국경을 봉쇄해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디뮤지엄은 오는 25일 개최 예정이었던 'SOUND MUSEUM: 너의 감정과 기억' 전시 개최를 속고 끝에 잠정 연기했

다. 이대로 가다간 5월로 예정된 '아트부산' 역시 조마조마하다는 시선 역시 존재한다.

문화와 문화 간 적극적인 교섭과 상호 이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문화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동일한외국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멈춤 현상은 남다를 게 없다. 코로나 발원지인 중국인 접국 중 가장 먼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홍콩에선 추정 매출 1조원에 달하는 아트페어인 '아트바젤홍콩'을 지난달 17일 전격 취소했다. '아트바젤홍콩' 개최 시기에 동시에 열리던 각종 위성 아트페어들도 진행을 포기했다.

'코로나19'가 세계적 유행에 접어들면서 최근엔 이탈리아의 베니스비엔날레 국제 건축전 또한 당초 5월 23일 개막을 8월 29일로 미뤘다. 여기에 6월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아트페어인 '스위스 아트바젤'을 비롯해 5월 개최 예정인 '프리즈 뉴욕'도 막을 올릴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 이밖에도 미국 입국 전면 금지 조치 이전 이미 비상사태가 선포된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은 물론이고 파리 루브르박물관 등도 전시를 중지했다. 그야말로 국내외 미술계가 공공 얼어붙었다.

세계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나 문화예술계 또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국가를 불문하고 예술인들은 밥줄이 끊겼으며 불안한 현재를 견디며 하루를 연명하고 있다. 이러한 형국에 이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도 봄은 온다'고 말한다. 하지만 올해는 유독 봄이 늦다. 서릿발 같은 국내외 미술계 현실을 보고 있노라면 그 봄이 오기도 전에 동사할 것만 같다.

/미술평론가

NS홈쇼핑, 10년연속 '행복더함 사회공헌' 대상

사회적 책임 균형있게 실천

NS홈쇼핑은 17일 '2020 행복더함 사회공헌 대상' 시상식에서 10년 연속 수상으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고 밝혔다.

올 해로 10년째 시행되고 있는 '2020 행복더함 사회공헌 대상' 시상식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언론인협회가 공동주최하는 '2020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의 일환으로 '행복더함 사회공헌 우수기업 경진대회'에 참가한 기업 중 우수한 성적을 거둔 기업에 시상하는 행사다.

NS홈쇼핑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난해 7월 실시된 'NS홈쇼핑과 함께하는 부산국제광고제 크리에이티브 캠프'에서 청소년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S홈쇼핑

성실히 실천하며, 모범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공헌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이웃을 보듬고 훈훈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 공로로 10년 연속 수상과 함께 명예의 전당에 헌액 됐다.

NS홈쇼핑은 업계 최초 UNGC(UN Global Compact·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으로 경제·환경·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이행하고 고객, 협력사 등과 소통을 통해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해 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인사

- ◆문화재청 ◇ 과장급 전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장 조주성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교육운영과장 문영철
- ◆KR투자증권 ◇ 신규 선임 △IB부문 특수금융본부 본부장 김삼현 △특수금융팀 상무 황상훈
- ◆외교부 △국립외교원 기획부장 강대수
- ◆한국고용정보원 ◇ 실장·센터장급 임명 △일자리플랫폼실장 임종훈 △기획조정실장 이명재 △청년정책허브센터장 고재성

부음

- ▲홍승자씨 별세, 은정·은호·은선·은양씨 모친상, 권혁준(KPN corp 바이오매스 부문 대표)·신혁(에스-오일토탈유회용 대표)씨 장모상 = 16일 오후 8시45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8일 오전 9시15분. 02-2650-5121
- ▲최동규씨 별세, 최중성(전 과산소방서장)·종문(SK하이닉스 청주대외협력팀장)씨 부친상 = 17일 오전 6시 35분, 청주 참사랑병원 장례식장 무궁화 2호, 발인 19일 오전 9시. 043-298-9200

▲이기수씨 별세, 이상택(전 해럴드경제·코리아헤럴드 국장)·이상순(대한항공 사무장)·이상명(사업)·이상목(전 삼성건설 상하이 주재원)씨 부친상 = 17일 오전 11시34분, 서울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19일 오전 7시, 장지 경북 영천 선영. 02-2650-2748

배포도우미 모집
강남, 서초지역 근무
010-5241-6694